

“영산재·단청 北에 지원”

태고종 통일불교정책 상임위원 대운 스님



북한불교와 하나되는 길을 모색하겠다

스님은 태고종 총회에서 결의한 통일불교 정책을 위한 '1종도 1구와 갖기'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누가 지역을 내기보다는 전 종도들이 통일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1구와 갖기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면으로 보니 북한스님들이 수하고 있는 출가사가 전통규격에 맞춰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재봉틀로 만든 것이라 눈에 거슬린다”는 대운 스님은 “태고종 전국 사찰에서 가사 1벌씩 만들어 북한사찰에 보내는 일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대운스님은 여건이 되면 북한을 직접 방문해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아보겠다고 종도들이 통일불교정책 추진위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했다.

한편 통일불교정책추진위 상임고문에는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고문에 만봉·해운·벽산·석주·동운·동월·경산·금봉·춘명·벽암·월명·남호·용호 스님, 총재에 인곡 총무원장, 지도위원에 남파·연운·해초 스님이 각각 추대됐으며 공동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집행위원, 분과위원, 북한불교연구소장 등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한국불교 우수성 알려야죠”

하버드에서 강연하는 능인선원 지광 스님

능인선원장 지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이 송산스님에 이어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 강단에 선다. 지광스님은 10월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불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하버드대 동양학부 소속 불교연구커뮤니티(HBC)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광스님은 “하버드 불교연구커뮤니티는 하버드대 학부와 대학원의 교수와 학생 등 400여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모임”이라고 밝히고 “이번 강연을 계기로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대 등 미국 동부의 명문대 불교관계 지식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탁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미국에는 티베트나 일본, 중국불교는 있어도 한국불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로 한국불교 포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지성인 사회를 파고들어 한국 불교에 관심있는 계층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해외포교의 거대한 거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대표할만한 사찰을 미국에 건립하고 한국불교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경기도 화성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전문 포교사를 양성, 미국에 파견



한다는 구상도 세워두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하버드대생들을 능인선원에 초청해 한국불교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포교사로서의 활동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통종 치어 방생법회

법장 수덕사 주지는 충남 예산군과 함께 18일 예산지수지에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종어류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치어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예산군은 지난 5월에도 2000만원을 투자해 참봉어 등 토산어종 26만 마리를 방류했다.

남경의약대 한국분교장 재임

해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은 중국의 자매대학인 남경중의약대학분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임되어 앞으로 5년 한국분교장으로 활동한다.

고회 기념논문집 발자

명성 정도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스님은 17일 운문사 만세루에서 ‘명성스님 고회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로부터 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동국대-서울경찰청 교류협정

송석규 동국대학교 총장은 2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교환 △소속 교수 및 교관 교류 등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경의선 연결 기공식 참석

법혜 민족통일 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남북교류 사업의 서막으로 18일 일직각에서 열린 경의선 철도

‘티베트의 신바...’ 출판기념회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최근 발간한 《티베트의 신바와 명상》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31)676-8700

미당 시인 관련자료 수집

임기중 동국대 교수(한국문학연구소장)는 전북 고창군이 마련한 미당 서정주 선생 시문학관에 전시할 미당선생의 생애와 문학활동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동국대 법학도서관 개관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은 26일 동국대 법학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은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공부방으로 이용되어 왔던 ‘계산고시학사’를 확대·개관한 것이다.

‘교계 신문’ 주제 특별강연

김병규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중앙승가대 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3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 ‘교계 신문과 신문 읽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서암효행 대상에 김혜인 양

3일 홍은사서 시상식

불교의 자비 효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시상하고 효행사상을 널리 고취시키기 위해 불교의 발전과 증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암문화학회(이사장 손현수)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서암효행상 효행대상에 김혜인(20·사진)양이 선정됐다.



중원 오늘날에 커다란 귀감이 되어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효행상에 강경자(48·경북 안동시 안기동)씨, 효행장려상에 이옥순(45·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씨, 경료상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소속 ‘청주 청원영산회’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3일 오후 1시 경북 안동시 약산 홍은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2232-6948 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불교원로 정재각 박사 별세



역사학자로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정재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사)가 17일 오전 2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북 상주 출신인 고인은 경성제대 예과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문과대학장, 대학원장을 거쳐 고전국역위원장, 정선문화연구원장, 숙명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양사 연구에 몰두, <세계문화사> (역사의 여음) 등 저서를 남겼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일자 씨와 아들 옥진(62) 씨가 있다. (02)921-9299

권오성 상임법사 임직



한국불교대원회 권오성 상임법사(55)가 21일 오전 8시50분 순천향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23일 발인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권 법사는 89년 육군중령(군법사)으로 전역한 이후 법보신문 총무부장, 관악산 연수암 상임법사, 예비역 군법사회 회장, 배꽃어린이집 원장, 양천구민체육센터 기획실장, 능인선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계에서 일해 왔다. 또 85년 국방부장관 표창, 83년 85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진강사 관음불 봉안·원통보전 낙성

경향 진강사(주지 감홍)는 18일 관음불상 봉안 및 법당인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은덕 총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권혁성 평강군수, 관내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지 2천여평의 진강사 원통보전은 108평 단층건물로 관세음보살을 모셨으며 불단 양 옆으로 작은 감실을 만들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등 108불을 봉안했다.



범용사 장병 합동 수계법회

1군사령부 군법당 범용사(주지법사 김말환)는 17일 대성사 조실 도문스님을 계사로 장병 및 장교가족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군사령부 양재일 불자회장, 여신도회 오숙자 회장과 정연태, 박용 법사 및 장병과 장교가족 400명이 참석한 이날 부처님 탄생지인 톨미나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스님의 환영영사도 함께 펼쳐졌다.



한나래 문화재단 1돌 기념법회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15일 통도사부산포교인 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산스님,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김정도 부산불교거사회장 등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한나래문화재단은 전국청소년 예술제를 주관한 것을 비롯 대보를 맞이 전통연 만들기, 화진놀이 및 들차 시음, 한일불교문화교류 등 다양한 문화 사업과 전통문화 개발에 앞장서 왔다.



한불연, 연수원 ‘유마정사’ 기공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17일 경기도 공주군 실촌면에서 불교연수원인 ‘유마정사’ 기공식을 가졌다. 연수원은 현대식 2층 건물로 내년 봄 완공예정이고, 법당과 부도터도 함께 건립된다. 연구원은 유마정사가 완공되면 이기영 박사와 서경수 교수의 법상을 모시고 이 박사의 부도비를 건립하는 한편 추모집전도 발간할 예정이다.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중구로 192-13 성지 8D 503호 TEL. 733-4271(F) FAX. 733-4279

표긋과 진오귀긋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신국판/값 7,500원

너희가 편하지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인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봉하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정신이 이루어져 현안에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국과 진오귀긋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지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너져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객 승무원 세 사람이 무구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절제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고있고 두 사람은 곧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명의 '무녀법곡,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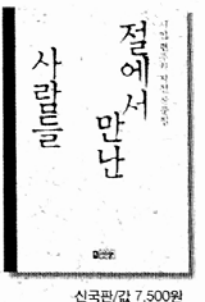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스님.....

명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지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은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맛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허영희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몽글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